



한국주택협회, 베트남부동산협회와 양해 각서 체결

한-베트남, 주택·부동산업의 상호 발전 추구

지난 11월 29일, 한국주택협회가 베트남부동산협회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주택·부동산업에 대한 현안 검토와 문제점 해결 등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양 협회 간 협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뤄진 양 협회 간 양해 각서 체결 현장에 다녀왔다.

에디터 | 하유정 · 사진 | 이충규

한 국주택협회가 지난 11월 29일,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건설부 산하 정식 기구인 베트남부동산협회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베트남부동산협회 특후이 트림 회장과 베트남 건설부 통 반 야 차관, 인민위원회 위원장 외 회원 5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국주택협회 측에서는 신훈 회장을 단장으로 동문건설 경재용 회장, 금호건설 이연구 대표, 계룡건설 이시구 대표, 대원 전영우 대표, 벽산건설 김인상 대표, 삼부토건 정진우 대표, 우미건설 이석준 대표 외에 베트남 건교관 유승용, 협회 윤오수 부회장과 남희룡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 각서는 양국 간 주택 및 부동산 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양 국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협회 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양해 각서 체결 이후에는 주택 및 부동산 업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의 주택·부동산업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주택 건설 기술 및 기업 경영 관리에 관한 경험을 상호 교류할 예정이다. 또 양국 주택·부동산 업체 간 합작 및 협력 활동 지원, 양측 관심사에 대한 공동 조사 연구 등과 같은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찰단 및 연수단의 상호 파견과 세미나,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 공동 조사 및 연구 사항 수행을 위한 인원 파견과 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양해 각서 제4조 제1항에 의거해 양 협회는 2008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교환하기로 했다. 초기 2년간은 협회 고위급을 중심으로 시찰단을 구성하고, 향후에는 주택 및 부동산 업체의 간부를 중심으로 시찰단을 구성해 양국 주택·부동산 업체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베트남부동산협회는 부동산 분야의 투자, 개발 관리, 중개 관리하는 사업을 총괄하는 곳으로, 대형 건설·주택 시공 및 개발 업체, 부동산 중개사 등 120여 개 업체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 사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개발, 경영, 중개 관련 경험을 제공하고,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의 업무 및 기술상 노하우를 안내하는 것으로, 부동산 분야의 국제 협력 및 국제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1 지난 11월 29일 한국주택협회는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건설부 산하 정식 기구인 베트남부동산협회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2 특 후이 트림 베트남부동산협회 회장. 3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

양국 주택 건설 업계의 경험과 노하우 교류 협력

베트남부동산협회장은 “한국의 건설사들은 주택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자본, 이주 대책, 신도시 개발 등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건설사들의 베트남 투자 및 개발이 이뤄지도록 양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2020년까지 경제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로 인해 낙후된 도시의 전력과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역설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베트남 국가 정책에 맞춰 한국 기업들에게 폭넓은 투자를 제안했다. 특히 베트남은 주택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한국 기업이 투자·개발을 한다면 더 가치 있는 토지 개발권을 부여할 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 측에서는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이 한국의 주택 산업 현황과 주요 주택 정책들을 베트남부동산협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고철 원장은 2005년의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2.7%로 절반을 넘고,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5.9%로 서울이 89.7%, 수도권이 96.8%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택 금융 관련 제도로는 국민주택기금 주택 청약·저축 제도, 보증자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80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은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지불 능력 부족으로 주거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고층 아파트 중심의 건설에 따른 도시 경관의 훼손 문제를 낳게 되었다”고 고철 원장이 설명했다.





베트남 투자 시 제도적 걸림돌 해결과 중앙 정부와 협조 필요

양국의 대표들이 각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마친 후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미건설 이석준 대표는 외국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개발 사업을 한다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베트남부동산협회 회장은 한국의 건설사들이 기반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반드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훈 회장은 “베트남은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인허가가 늦고, 이주 대책이 해결되지 않아서 투자하는 개발 회사들의 고충이 크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줘야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부동산협회 회장은 “제도적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자국의 건설사들도 똑같은 고충을 안고 있다. 주민의 65%가 동의하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법안이 있지만, 중앙 정부와 잘 협조하면 주민들과 충돌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서 베트남부동산협회 주최로 환영 만찬을 가진 후 한국 기업들이 투자 개발하는 주택 단지를 시찰했다. 대우건설,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대원, 동일하이빌 5개사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지와 베트남 비나코넥스, 한국의 포스코 건설이 5대 5로 투자 개발하는 북안 카잉 신도시 사업지를 시찰했다. 이후 주베트남 한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만찬을 가져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좀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㉞

4 이번 양해 각서는 양국 간 주택 및 부동산 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5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특우 이트림 베트남 부동산협회 회장이 체결식에 사인을 하고 있다.